

축산업계

소식

영육, 성우, 대연식품 계열화업체로 지정 업체당 25억원씩 용자

농림수산부는 금년도 축산 계열화생산사업 지원 6개업체를 선정하였다. 양계부문은 영육농산, 성우식품, 대연식품, 양돈부문은 서울경기양돈조합, 경남부산양돈조합, 제일농장으로 업체당 25억원씩 150억원이 용자된다.

양축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생산비 절감과 생산 및 유통단계 축소로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완전계열체계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업체는 완전계열화생산사업을 원칙으로 하여 자축, 사료 등 생산요소 공급에서 판매 및 농가지도까지 전담으로 일괄 생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생산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시장출하를 중지하고 자체비축을 실시함과 동시에 농가입식도 자체해야 한다.

냉장육 수출기반 조성키로 양계, 양돈 4개 업체에 20억원씩 지원

농림수산부는 닭과 돼지 계열화업체 중 각각 2개

업체씩 4개업체를 선정하여 20억원씩 80억원의 자금을 지원, 냉장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출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냉장육 수출기반 조성으로 수입개방화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양기술체계의 확립으로 규격품 및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토록 하는 한편 가공 및 유통산업을 병행 육성한다는 목적이다. 계열화 생산 사업자 중에서 닭은 도계장, 종계장, 부화장을 보유하고 기술, 인력을 확보한 사업자로 냉장닭고기 수출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원받는 업체는 △수출규격축산물 생산을 위한 계열농가의 축사시설 개선 △냉장육 수출 확대를 위한 유통시설 설치 △수출잔여육 처리 등을 위한 운영 및 준비 등에 자금을 중점 투입토록 할 계획이다.

육계산업 경쟁력 제고 국제심포지엄개최 축산시험장 일본, 태국 전문가 초청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은 육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지난 17일 개최하였다.

일본, 태국 및 국내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육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닭고기 수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축산시험장 정선부 박사가 “육계산업의 생산비 절감에 의한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주)서울인티 강석부 사장이 “육계사

육농가의 문제점과 대책”, 일본 구리하라씨가 “일본의 수입닭고기 유통실태 및 전망”, 태국 축산개발연구원 타마부트씨가 “태국의 육계사육 실태 및 닭고기 수출 촉진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소·돼지고기 가격 안정대 상향조정 업계는 현실성 없다는 불만

정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값 안정대를 상향조정했다.

생체중 400kg 큰수소의 경우 하한가 150만원, 상한가 18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했다. 돼지고기는 생체중 90kg 성돈의 경우 5천원씩 상승한 하한가 10만원, 상한가 14만5천원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양축가들은 송아지가 16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음에도 하한가격이 150만원에 설정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 지적하며 상한가 210만원, 하한가 19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수의학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미국, 영국, 일본 과학자 초청

대한수의학회(회장 박근식)는 지난 17일 안양 문화예술회관에서 91년도 춘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의학분야에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의 과학자를 초청 「수의학 분야에 있어서 첨단과학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발표내용은 강원대 김우호 교수가 “유전공학적 기법의 원리와 그 응용전망”, 도쿄대학 야마노치 교수가 “유전공학 기법을 이용한 동물용 예방약 개발과 이용”, pitmanMoor사 Brian Schrioker박사가 “유전공학 기법을 이용한 성장촉

진물질 개발과 이용”, 경상대 이효종 교수가 “핵이식의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공청회 개최 유통구조 개선대책 곧 마련될듯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23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농경련 성배영 박사는 △산지 유통시설 확충과 공동출하 확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확대 및 공정거래 질서확립 △도매시장의 효율성 증진 △통계조사 및 유통정보의 내실화 △등급화, 규격화 확대로 유통비용의 절감과 품질, 중량에 따른 공정거래 유도 등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의지와 집중적인 투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유통개선의 주체는 농수축협 등 생산자 조직이 담당해야 유통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유통부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생산농민이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축산관측제도 개선 육계 2개월, 산란계 3개월 주기로

축협중앙회는 축산관측개선안을 마련하여 축산관측을 축종별로 전문화하고, 관측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그동안 소, 돼지, 닭 등 3가지로 분류되어 있던 대상축종을 한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등 5가지로 세분화 하였다. 또 사육마리수와 산지가격 위주로 되어있던 관측내용에 수급상황 및 소비자 가격 동향을 포함시키고 있다.

축종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3개월을 주기로 실시해오던 것을 축종별 특성을 고려 중장기관측을

병행, 수급안정에 기여토록 했다. 단기관측의 경우 한우, 젓소는 6개월, 돼지와 산란계는 3개월, 육계는 2개월을 주기로 하여 3~9개월 후의 경기를 전망하게 된다. 중장기 관측은 전축종을 6개월 주기로 1~2년 후를 관측하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백지화 가능성

여야당 반대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정부의 농업지역 지정 계획이 정치권의 반대로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자당은 농어촌발전기획단이 4개 지역을 순회,

여론을 청취한 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농지는 가격하락으로 농민의 반발이 우려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의 절대농지에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중에 있다. 신민당은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대해서 전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민추방과 농촌해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사업은 지난해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는 것으로 시장개방에 대비해 서둘러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최근 도면작업을 완료하고 208개 시·군에 대한 실사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축산 배설물 위생관리 현황과 문제점 심포지엄 안내

- 일시 : 1991. 6. 14(금) 10 : 30~18 : 00
- 장소 : 과천 한국마사회 강당
- 발표내용 :
 - 축산 배설물 처리제도와 문제점(이유원)
 - 축산 배설물 관리 현황(유재일)
 - 계분 처리와 이용 (Teiji Horiuchi)
 - 축산배설물 위생적 처리를 위한 미생물 이용 현황과 문제점(오태광)
 - 종합토의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